



# 새싹 기르며 공부·봉사 “희망 합창”

## 충남 천안·당진

### 천안 절마다 공부모임 개설...30대 학구열 후끈 당진 강한 기독교세 옛말...특성화된 포교 정착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는 천안 부루나 어린이집 원장 광현스님. 부루나 어린이집은 천안에서 가장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고 있다.

#### # 젊은불교, 공부하는 불자

“불교대학 때문에 천안불교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불교대학 학생들의 40%가 30~40대입니다. 젊은층이 많이 늘었지요.”(각원사 부주지 대원 스님)

“확실히 젊어졌어요. 우리 절 신도들도 30~40대가 절반을 넘어요. 제대로 배우고 수행하겠다는 자세도 대단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사찰 일에도 적극적이고요.”(성불사 주지 원경 스님)

“서로 뜻이 맞아요. 여름과 겨울 불교학교도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엽니다.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스님들께 감사할 따름이지요.”(천불사 주지·사암련 기획실장 부불 스님)

젊어진 신도들, 흥에 겨운 스님들. 마치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있는 느낌이다. 천안불교가 그렇다. ‘손발이 맞는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듯 하다. 스님과 스님들, 스님과 신도들, 신도와 신도들의 호흡이 적적 맞는다. 자

연히 활동도 활발할 수밖에. 이렇게 천안불교가 달라진 것은 최근 4~5년 전부터. 그렇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스님이 잘 생겨서 그렇지요.” “법문을 잘해서 그런가?” “우리 스님들 복이지 뭐.” 웃으며 건네는 농담. 천안 스님들은 여유가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악착같은 노력과 고집이 있다. 천안의 스님들은 자기 자신과 신도들을 믿는다. “그래, 어디 한 번 해(천안불교를 일으켜보자).”

3년 전 각원사에 천안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대학이 개설되자 젊은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스님들 사이에서 내 신도 내 신도 할 것 없이 제대로 가르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37기생 130여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불교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40%가 30~40대. 50~60대가 신도층을 형성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신행도 적극적이다. 아예 동문들 간에 자원봉사회(정진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성불사의 참선 모임인 ‘선우회’ 구성원은



풍물연습을 하고있는 당진 흥국사 수미어린이집 아이들. 수미어린이집 풍물패는 지역행사에 빠지지 않고 초청될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자랑한다.

30~40대가 절반을 넘는다. 2년 전 만들어진 선우회는 참선공부는 물론 자원봉사도 열심히 한다. 합창단과 풍물패에서도 50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30~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천불사 거사회와 합창단 역시 신행과 지역 활동 모두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광덕사는 올해부터 3개월 과정의 ‘기초교리 불교대학’을 개설했는데 수강자가 몰려 비좁은 강의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러보낸 신도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물론 수강자의 70%가 30~40대다. 매일 한차례씩 모임을 갖는 ‘참선법회’ 신도들 가운데에서 아예 50대 이상은 없다. 법수사, 약천사, 도광사, 쌍용선원, 안양암 등 많은 사찰들에서도 젊은 신도들이 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어느 사찰엔 가든 ‘젊은 불교, 공부하는 불자’ 분위기가 확산한다.

사암련 활동이 왕성한 것도 천안불교의 자랑. 2003년 시내에 부루나 어린이집이 개원하자 사암련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을 정도로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천안 사암련은

최근 기획, 총무, 재무 등 7개 부서에 문화, 환경, 인권, 복지 등 8개 부서를 신설, 모두 15개 부서로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활동폭을 대폭 넓혔다.

#### # 사암련 결성 움직임 ‘술술’

“당진에도 불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앞으로 두고 보라.”

그동안 암도적인 기독교세에 눌려 숨쉬기조차 쉽지 않았던 당진의 사찰들. 하지만 일부 사찰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흥국사, 보덕사, 영랑사 포교원, 정토사, 영담사 등 당진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들은 어린이, 복지, 신행단체 포교 등 사찰별분야를 특성화해 활동하면서 차근차근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사암련연합회가 없다는 점. 그러나 이들 사찰들을 중심으로 사암련연합회 결성의 필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지역불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당진불교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천안·당진=한영우 기자 mwthan@buddhapia.com



#### 각원사

천안의 진산으로 불리는 태조산에 위치한 대사찰.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청동 대불로도 유명하다. 국내 목조 대웅보전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대법당을 비롯해 천불전, 설법전 등의 전각들이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뽐낸다. (041)556-1425



각원사의 통일기원 청동대불

#### 성불사

고려시대에 창건된 천안의 고찰. 절 모퉁이에 흐르는 계곡의 잔잔한 물소리와 독경소리가 어우러질 때면 불국정토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옛 고찰의 면모를 되살리기 위해 아라한전 건립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041)565-4567

#### 광덕사

천안에서는 주변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과 울창한 숲, 그리고 사찰이 어우러진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신라 때 창건된 사찰로 월인 심원사, 고창 선운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지장도량이다. (041)567-0050

#### 천불사

매월 음력 5일이면 ‘큰 스님 초청법회’가 열리는데, 이 때에는 전국에서 불자들이 모여든다. 주변에 독립기념관과 3·1운동 역사의 현장인 아우내 장터가 있어 자녀교육은 물론 휴식을 겸해 가족끼리 찾기에 좋은 사찰이다. (041)557-3223

#### 흥국사

700여 평의 넓은 마당을 지나면 잘 조각된 듯한 예쁜 전각들이 방문객을 맞는다. 뒷산은 편안하면서도 포근함을 준다. 이런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는 수미 어린이집은 당진 불교의 자랑거리다. (041)362-6008



흥국사 전경

#### 보덕사

절벽에 세워진 절로 층별로 조성돼 있어 1층에서 보면 3층 요사채와 그 위의 법당과 종각이 보이지 않는다. 절이 자연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당진군 석문면에 위치. (041)353-9306



법인 스님, 대원 스님, 부불 스님, 원경 스님, 법수 스님

### 천안·당진 불교를 이끄는 주역들

#### 천안불교 ‘새바람’ 초석

**법인 스님** (천안 각원사 주지) 천안불교의 정신적 지주.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불법을 세상에 널리 퍼졌다는 뜻에서 1977년 각원사를 창건하고 지역 포교에 나서면서 천안불교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앞서 2년 전에는 일본 동경에서 명월사를 창건하고 재일교포 포교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지금도 주로 명월사에서 주석하면서 해외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정도로 선과 교를 두루 겸비한 스님으로 평가받고 있다.

#### 사암련·경승 등 전방위 활동

**대원 스님** (천안사암련회 회장) 천안불교를 이끌고 있는 리더. 천안사암련합회를 조직하고 4대 회장에 이어 현재 6대 회장을 맡으면서 천안불교 발전을 위해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사찰들의 단합을 위해 애쓰면서 사암련 차원의 지역 축제 개최와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천안경찰서와 천안시청 불자회를 창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천안경찰서 경승과 천안 개령교도소와 소년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매달 큰스님 초청법회

**부불 스님** (천안 천불사 주지) 천안불교의 ‘엔진’이다. 9년간 사암련 기획

실장을 맡아 오늘의 천안불교와 사암련연합회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1년 전 천불사를 창건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큰 스님 초청법회’를 열어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충남 청소년 쉼터 원장, 천안사회복지협의회 자원위원장, 천안개령교도소 종교교화위원 등 지역에서 맡고 있는 직함만도 10여 개. 병천면에 불교종택타운 건립을 추진 중이다.

#### 안경 보시 3천개, 인기 ‘짱’

**원경 스님** (천안 성불사 주지)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천안불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가가는 불교, 봉사하는 불교”가 가장 좋은 포교라는 신념 아래 천안시 26개 읍·면·동을 찾다니며 6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3천개의 안경을 보시하고, 해마다 경로잔치를 여는가 하면 독거노인돕기 행사를 통해 지역 노인복지에 기여했다. 작년부터는 산사음악회를 열고 문화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소탈한 성격에 법문을 재미있게 해서 신도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 담없는 절의 ‘아저씨’

**법수 스님** (천안 법수사 회주) 법수사가 위치한 목천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아저씨’. 법수사에는 담이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터도 되고, 마을 주민의 모임터도 됐다. 6년 전 법수사를 창건하고, 매년 11월 동학혁명군 전몰지역인 세성산에서 위령제를 지내면서 지역민들과 가까워졌다.

#### 시민위해 참선법회

**원울 스님** (천안 광덕사 주지) 작년 이맘때 광덕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침체에 빠져있던 광덕사를 활기찬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시민들을 위한 참선법회를 열고 있고, 포 스님들을 위한 선원을 개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수행처로 명성이 높았던 옛 광덕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사아동들을 위한 후원에도 적극적이다.

#### 어린이 포교의 선두주자

**광현 스님** (천안 부루나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 포교야말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꾸는 일입니다.” 2003년 6월 천안에서는 처음으로 불교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그것도 정년퇴직한 아버지의 퇴직금을 털어서. 아버지에게는 미안하지만 열심히 어린이 포교하는 것이 부처님과 아버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천안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천안 지역 어린이 포교 증진의 중책을 맡고 있다.

#### 지계지고 돌 나르며 불사

**법공 스님** (당진 흥국사 주지) 지금까지 21년간 여림불교학교를 열어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세월. 8년 전 당진에서 처음으로 불교 어린이집(수미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지금 당진에서 가장 훌륭한 어린이집이라는 평판을 얻는데 성공했다.

25년 전 직접 지계를 지고 돌을 나르며 폐사지나 다름없었던 흥국사를 아꼈던 사찰로 일구었다. 화생회·청년회 등의 법회를 알차게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가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불우 노인들을 후원하는 등 지역 복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지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스님이 됐다.

#### 당진 불심의 중심 역할

**정안 스님** (당진 보덕사 주지) 절벽 한복판에 다 쓰러져가는 요사채 한 채만 남아있던 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했다. 23년 전, 보덕사에 온 첫날부터 목탁을 치며 3년간 정근을 했다. 그러면서 법당이 지어지고, 법회장(심경당)도 생기고 종각도 만들어졌다. 보덕사는 그렇게 아름다운 절로 다시 태어났다. 당진경찰서 경승실장과 경찰 불자회 지도법사를 맡으면서 지역불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당진의 불자들은 정안 스님을 훌륭한 스님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 연꽃기르듯 수행·포교

**선오 스님** (당진 정토사 주지) 4년째 지역민들을 위한 ‘효도잔치 및 군민발전기원법회’를 열어 기독교세가 강한 당진 지역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97년 아미산에 정토사를 창건하고 사찰 신도들로 자원봉사팀(좋은 인연)을 구성해 지역 복지에도 나서고 있다. 연꽃에도 관심이 많아 3천여명 규모의 연꽃 재배지를 조성해 놓았다. ‘불교인성교육원’을 세워 사회를 맑고 밝게 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